

모로코의 민속복식에 관한 연구

이 순 홍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the Folk Costume of Morocco

Soon-Hong, Le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 Sung-Shin Women's University

ABSTRACT

Morocco is a country located in the northwest of Africa. Its official name is Al Mamlata al Maghrebia. This country abounds in natural resources from fishery, forestry, mining industry and manufacturing industry. However, due to insufficient irrigation canals harvests are highly unstable at the mercy of precipitation. State religion is islam and few are Jewish or Christian.

1. Clothing: Muslim Arabians' clothes are simple and the clothes of the Berber who have primitive belief are splendid. Those are good examples of religious influence on clothes. There are various colors and patterns in the clothes, however, solid color and stripes are the most commonly worn. Higher officials and the upper class wear in their representative color white including turburns and shoes. Representative clothes in Morocco are jellaba, kaftan, and chalwar which are one-piece style dresses cut out in a straight line and worn by both men and women, Selham, ksa with which men cover their shoulders and drape, and haik which is draped by women.

Arabian women wear veils to hide their body, face and hairs and are in simple silhouette, on the other hand, the Berber are splendid with various ornaments.

2. Festivals and clothing: Traditional festivals in Morocco are customary events, art exhibitions, agricultural exhibitions, traveling business, events from religious origin, birthday or deathday of the saints, and so on, which delight the dwellers on the road and they are called by various names. Costumes for the festival have no special mode. They add various ornaments and gorgeous scarves to their ordinary traditional dress and they wear heavy makeups and tattoos.

3. Ornaments and accessories: People in Morocco think their ornaments as the symbol of their wealth. Therefore, they hang huge chains of gold or silver attached with gold and silver ornaments such as

* 이 논문은 1998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ins, nielle, and other jewels such as pearl, coral, amber, seven treasures. Ornaments they bring along when they marry are regarded as a dowry. Moreover, ornaments played a role as the mark of the tribe.

Traditional shoes are yellow sleepers that have narrowed front, no hills and opened in the behind. In addition, there are various types of shoes with many decorations. As for colors, there are yellow, red, white and colorful ones.

Key Word : Morocco, folk costume, Islam, Arab, Berber

(모로코, 민속복식, 이슬람교, 아랍인, 베르베르인)

I. 서 론

인류는 그들 자신이 오랜 세월을 두고 세대에서 세대를 전하면서 독자적으로 발전 시켜온 그들 고유의 복식을 사용하기도 하고 타 지역 또는 종족이 발전시킨 복식을 빌려다 사용하기도 한다. 뿐만아니라 타 지역 복식을 자신들의 기호와 용도에 따라 변형시켜서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복식은 그 지역 고유의 생활 풍속, 풍습, 가치관, 기호, 소재, 기술등의 사회적 배경과 자연환경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러한 복식을 우리는 민속복식이라 한다. 오늘날 민속복식은 민족의상, 민속의상, 민족의장으로도 불리운다. 유럽이나 서양의 여러나라 민속복식은 문헌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 아프리카 지역의 민속복식에 관한 문헌과 연구는 흔히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본인은 북아프리카의 모로코 민속복식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유럽과 가깝고 아랍의 침입으로 이슬람 문화를 가져 다양한 문화가 섞인 신비의 나라인 모로코는 북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슬람 전통의 종교적인 믿음과 초자연적인 존재에 관한 그들의 신념을 지켜나가는 나라로서 모로코의 민속복식을 연구함에 있어 그들의 생활 전반에 깊이 새겨져 있는 창조적인 예술정신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원시예술로서 존재하고 있는 그들의 민속복식 양식을 이해하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인류에게 있어서 최초의 의복이란 수치심으로부터

몸을 가리고 추위와 위협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명백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복의 원류를 거슬러 올라가면 몸에 문신을 하거나 얼굴이나 손에 색을 칠하는 화장과 같은 기능을 하는 피부장식이 복식보다 먼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아직까지 모로코 복식에 관한 선행연구가 없으므로 본 연구는 복식사적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사려된다.

연구내용으로 시대적 배경과 복식의 분류, 그리고 장식 및 부속품 등에 대한 내용연구를 하고, 연구방법과 범위로는 각종 문헌을 통하여 모로코의 민속복식에 한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II. 역사적 및 문화적 배경

1. 역사적 배경

1) 정치·경제적 배경

모로코는 아프리카 대륙 북서단에 있는 나라로 정식 명칭은 Al Mamlata al Maghrebia(마그리브왕국)이다.¹⁾ 고대에 페니키아인과 카르타고인이 정착한 적이 있었으나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의 포에니 전쟁이후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7세기경 아랍민족이 침입하여 이슬람화한 베르베르민족은 789년 최초의 회교국인 이드리스(Idris)왕조를 페스(Fes)에 세우게 되었다. 11세기부터 15세기까지는 알모

1) 동아출판사, 「동아세계대백과사전」 (서울 : 동아출판사, 1995). p.87.

라비드(Almoravid, 1062-1147)왕조, 알모하드(Al-mohad, 1147-1269)왕조, 메르니드(Merimid, 1269-1465)왕조가 스페인의 일부를 통치하던 시대였다.²⁾

16세기경 부터는 아랍민족이 모로코 전역을 통일하여 지배하였으며, 싸드(Saad)왕조시대 부터는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의 진출이 시작되었고 그후 알라위(Alawi 1672-1723) 왕조가 건립되어 모로코 최대의 전성기를 맞이하여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의 진출이 현저해졌다. 또한 모로코는 1884년 스페인의 침략을 받았고 마침내 1904년 영국, 1911년 독일에 의해 모로코는 프랑스 세력권으로 인정되었다. 그로인해 모로코는 1912년 페스조약으로 프랑스 보호령이 되었고, 1912년 11월 프랑스가 서부 사하라 지역 및 모로코 남부 일부에 대한 스페인의 세력권을 인정함에 따라 프랑스 및 스페인 세력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던 모로코는 1956년 44년간의 프랑스 보호령하에서 독립하여 1957년 모하메드(Mohammed) 5세가 즉위하였으며 1961년 모하메드 사망 후 하산(Hassan) 2세가 즉위하여 현재까지 통치하고 있다.

정부형태는 국왕중심제이며 국왕은 3권을 초월하여 국가의 독립 및 영토보존의 보존자로서의 권력을 소유하고 있다. 1972년 개정헌법은 왕국의 국시를 '신, 조국, 국왕'으로, 정체를 입헌군주제로 규정하고 있다.³⁾

모로코는 전체인구의 약3분의2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1988년 현재 전인구의 4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주요 작물은 밀과 보리로 북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높은 생산량을 보이고 있으며, 이밖의 주요 작물은 두류, 사탕수수 등이며, 감귤류, 포도,

대추, 야자, 올리브 등도 대량 재배되어 수출되고 있다. 또한 모로코는 수산업이 활발하며, 광업은 인광석 이외에도 철, 아연, 망간, 동 등 비교적 지하자원이 풍부하다.⁴⁾ 현재 제조업은 식품가공 및 섬유·의류, 화학·비료산업 등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있는데, 이중 최대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식품가공업이다. 주요 생산품은 밀가루, 빵, 식용유, 과일 및 수산물 가공식품 등이고, 대부분의 업체는 카사블랑카, 라바트 등지의 대도시에 몰려있다.⁵⁾

섬유·의류산업은 1970년대 이후 외국인 투자 의 설치로 크게 성장하였으며, 가죽제품·신발 등을 중심으로 현재도 외국인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⁶⁾

주요 공장들은 북서쪽 해안에 있는 카사블랑카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공업 공장들은 양탄자나 가죽 제품들을 만들어 수출한다.

모로코 정부는 외화 수입과 새로운 유망 직종으로서 관광 산업을 육성한다.⁷⁾

2) 지리적 배경

모로코의 지형은 해안 저지대와 아틀라스 산맥, 그리고 사하라 사막의 세 주요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틀라스 산맥과 바다 사이에 있는 북서쪽 해안의 저지대는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지역이며 아틀라스 산맥은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모로코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며 뻗어 있다. 그 남서쪽에 있는 엘티아틀라스 산맥은 수강 평원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중앙에 있는 그랜드아틀라스는 하이아틀라스 또는 하우트아틀라스라고도 불리는데, 이 곳에 있

2) 손옥임, "모로코의 국가건설과 교육제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6, p.5.

3) 상계서, p.6.

4) Abd El-kader Baina, 「Le Systeme de L'enseignement au Maroc. Tome I」 (Casa : Les Editions Maghrebines, 1981), p.47.

5) 대한무역진흥공사, 「해외시장 모로코편」 (서울 : 대한무역진흥공사, 1991), pp.10-14.

6) 유재홍, "한국과 북아프리카 국가간의 경제협력 방안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1992, p.11.

7) 중앙교육연구원, 「북아프리카, 아라비아 반도」 (서울 : 평화당, 1994), p.15.

는 제벨투브길산의 높이는 4.165m이다. 북동쪽에는 미들아틀라스가 위치하고, 미들아틀라스 북쪽으로는 리프 산맥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 평행선을 이루며 뻗어 있고, 아틀라스 산맥의 남쪽과 동쪽에는 사하라 사막이 있다.⁸⁾

모로코는 수도인 라바트와 가장 큰 도시인 카사블랑카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주요 도시들이 해안에 위치해 있다. 영토는 458,730km(서부사하라 252,120 km제외)이나 인구는 1996년 약 3,000만명이며 1인당 국민소득은 약 1030\$이다.

기후는 무척 다양해서 북부는 온난한 지중해시대, 여름은 30도, 겨울은 20도로 온화하다. 중부지방은 만년설의 고봉을 몇 개 포함하는 산악지대로 그 곳을 빠져나간 곳에 건조지대인 사하라사막이 전개된다.⁹⁾

오늘날 대부분의 모로코 인은 아랍-베르베르인의 혼혈이다. 대체로 아랍어를 사용하고 베르베르어가 아랍어와 함께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¹⁰⁾

모로코는 아랍어를 공식어로 채택하고 있으나, 프랑스어, 베르베르어의 세 가지 언어가 공존하고 있다.¹¹⁾

2. 문화적 배경

1) 종교적 배경

모로코는 국교가 이슬람교이며 소수의 사람들에게 의해 유대교와 기독교를 믿고 있다.

이슬람교도가 지켜야 할 의무의 하나인 라마단은 해가 지고 해가 뜰때만 먹고 담배피는 것이 허락되는 모든 회교인들이 30일 동안 단식을 하는 것이다.

모로코의 여성들은 그들의 집으로 '나쁜 약'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방법은 여러종류의 향료, 알로에수지, 크리스탈과 씨앗, 라벤더 같은 것들을 집에서 훈증소독하는 것이다.¹²⁾ 여성들은 향료가 나쁜약을 쫓아주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에 대한 대부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라마단 중에는 공식공휴일은 아니지만 낮 활동은 거의 정지 상태로 관청은 물론 은행, 일반 상점에 이르기 까지 영업시간이 단축되고 일상생활의 리듬이 바뀌게 된다. 이러한 라마단이 끝나면 라마단을 성실히 끝낸 것을 자축하는 양의 축제로 불리우는 양고기를 먹는 잔치가 벌어진다.

2) 예술적 배경

모로코의 예술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아틀라스 산맥을 경계로 내륙쪽 즉, 사하라 사막 쪽은 블랙 아프리카 예술의 영향을 받았고 그 반대편은 이슬람계 예술이라 볼 수 있어 이슬람계의 건축물과 조각 장신구 등이 많다.¹³⁾

8C부터 10C까지 이드리스왕조가 모로코의 수도로 페스를 세우고 11C와 12C의 알모라비드 왕조동안 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스페인으로부터 추방되었을 때 안달루시아의 뛰어난 문명이 모로코에 뿌리를 내렸다. 그리고 사하라 사막과 지중해의 무역 교통로로 마프리카의 중요지점으로서 모로코는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사막과는 다른 다양한 외국의 양식을 경험했다.¹⁴⁾

녹색, 푸른색, 검은색, 빨간색 모자이크가 1300년대에 유행하는 동안 정교한 레이스 형태 같은 것에

8) 상계서, p.14.

9) 松本敏子, 私の集めた世界の民族服「衣生活研究」,VOL16, No4, 1989, p. 34.

10) 유정준, "모로코의 언어상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1996, p.4.

11) Grandguillaume, G., Arabisation et politique linguistique au Maghreb, (Paris : Maisonneuve, 1983), Moha Ennaji. p.14에서 재인용.

12) JAMES F. JERES, 「Arts and Crafts of Morocco」(LD : THAMES AND HUDSON, 1995), p.140.

13) Seyyed Hossein Nasr, 「Islamic Art and Sprituality」(NY : State University of Newyork Press, 1987), p.31.

14) Brain Bell, 「Insight Guide MOROCCO」(HK : APA, 1995), p.91.

사용되었던 stucco가 13C에 전래되었다. 모자이크와 벽을 바르는 치자용 회반죽(stucco)은 장식 예술이 번창했던 스페인의 이슬람교도들에 의해 모로코로 수입되었다.¹⁵⁾ 안달루시안 패션에서도 자체적으로 추상적인 디자인이 표현되는 정교한 금속세공 작업이 창문과 현관문의 장식적 의장이 있는 창살과 통풍장치에 이용되었다.

종교적 건물인 모스크는 모든 이슬람 건축양식에 비해 커다란 원형의 형태를 띄고 있다. 대부분의 모로코적인 모스크는 외형상으로 평범하다. 높게 장식된 출입문과 회교사원의 뾰족탑은 가장 눈에 띄는 걸모양이며, 지붕은 대개 단순한 녹색기와를 하고 있다. 모로코에 있는 카라우이네(Karauine) 모스크는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회교성전으로 이슬람교국 사이에서는 유명한 건축물로 대표된다. 이러한 건축물에서는 Zellige(유약을 바른 채색파일)를 아라비아식 무늬로 모자이크한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아라비아 무늬는 건축 뿐만 아니라 카펫, 그릇 등의 생활용품과 복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카페트의 유형에는 기하학적인 형태에 화려한 빨간색과 푸른색이 들어있는 Ribati와 좀 더 부드러운 색조의 식물성 염색제와 동식물의 형태를 담고있는 조잡한 형태의 일반적으로 더 작은 Tazanacht가 있다.

모로코는 수공업이 다양하고 직인이 전수하는 기술의 존재이다. 페스에는 소규모의 공방이 무수히 많으며, 용단 등의 직물생산, 자라바, 카프탄으로 불리는 전통의상을 만드는 의상실, 무두질한 가죽과 가죽의 염색기술은 그 도시의 특산품이 되었다.¹⁶⁾

Ⅲ. 복식의 일반적 특징

모로코는 지브랄탈 해협 사이로 유럽대륙과 연결되며, 동남부는 아틀라스 산맥과 사하라 사막에 의해 다른 아프리카 지역과는 차단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블랙 아프리카라 불리는 사하라 사막 남쪽에 있는 나라들과는 달리 일찍이 문명화된 문화, 의복을 보여준다.¹⁷⁾

아랍과 유럽 문화의 계속된 침략을 받은 대서양 근처와 지중해 연안의 지역은 모로코 고유문화와 이슬람 문화, 유럽문화의 세가지 특성이 공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화의 혼합은 긴 아랍 스타일의 겹옷을 입고 수놓은 Fez모자를 쓰고 페르시아 풍의 뾰족한 신발을 신은 사람의 복식에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 구분되는 기후도 의상에 영향을 미쳐 해안지방은 바람이 잘 통하는 소재를 사용한 반면, 내륙지방은 두껍고 무거운 직물로 여러겹 겹쳐 입는 스타일이다.¹⁸⁾

아랍인들은 7세기부터 북아프리카 지역에 세력을 펼쳐 8세기에는 모로코에 이르러 정착을 위해 이땅을 침입하고 중심세력이 되었다. 이때부터 양모, 견, 목면 등의 섬유소재나 염색재료와 기술, 그리고 기하학적인 무늬는 아랍인에게서 전래되어진 것이다.¹⁹⁾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아라비아 무늬는 건축 뿐만 아니라 생활용품에서부터 복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의상의 깃, 소매끝 장식과 가방, 모자 등의 장신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중의 취향은 국가 및 국제관계에 의해 형성되기도 하고 정치적 승인이나 수용이 복식에 영향을 미친다. 모로코 복식에서 터번, 베일 등이 아랍 스타일이다. 모로코 복식은 이슬람교를 종교로 가진

15) 상계서

16) 「季刊民族學」(日本版, 1995), NO.71, p.14.

17) Watterberg and Smith, 「The New Nation of Africa」(LD : Hart, 1998), p.257.

18) 상계서, p.260.

19) 채정자역, 「중동·아프리카」(서울 : 역사교육자협회, 1998), p.296.

중동의 여러나라 복식과 비슷하다. 특히 중동에서 들어온 카프탄과 베일은 여성복식의 기본이 되었으며, 겨울이 매우 엄격한 이슬람교는 의복을 소박하게 하여 착용하였다. 그러므로 의복에서 거의 모든 장식을 배제하고 색상도 흰색과 어두운 단색으로 만들어 복식에서부터 항상 경건한 마음자세를 갖게 하였다. 이슬람교도가 된 베르베르인들은 의상에 많은 장식과 화려한 색상을 허용하게 되어 복식을 화려하게 착용하였다. 검소한 복장의 이슬람교도의 아랍인과 화려한 복장의 원시적 종교의 베르베르인의 대비는 종교가 의상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겠다.

모로코는 지리적으로는 아프리카에 있지만 중동과 문화는 아랍권에 속하고 있어 복식에서는 아랍적인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며, 민속복식에는 그리스, 이집트, 터키 등의 여러나라 특징이 보여진다.

모로코의 가장 대표적인 의상은 남녀 모두 공통적으로 입는 직선재단한 원피스 스타일의 Djellaba와 남자들이 망토처럼 두르는 Selham, 여자들이 두르는 드레이프형의 Izar라 할 수 있다.

모로코를 구성하는 아랍인과 베르베르인은 그들 문화의 차이에 따라 복식에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아랍인들이 일찍 진출한 대도시는 아랍스타일의 의상으로 여성들은 장식이 없는 단순한 실루엣과 몸과 얼굴, 머리카락이 드러나지 않도록 베일을 착용하고 있다. 반면에 사하라 사막과 아틀라스 산맥 지역의 베르베르인들은 그들만의 스타일을 지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장식으로 화려한 것이 특징이다. 날씨가 추울 때는 망토 스타일의 겹옷을 하나 더 걸친다. 머리에는 넓은 천으로 된 터번을 두르고 모래바람이 심할 때는 이것을 풀어 얼굴을 완전히 가린다. 또한 여러장의 천을 겹치고 두르며 벨트로 허리를 고정시킨다. 이들의 옷은 대부분 푸른색으로 시원한 오아시스를 찾는 마음을 상징한다.

여성복식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외출시 얼굴을 가리는 것이다. 이것은 종교적인 관습으로 많이 가리면 가릴수록 그녀의 신앙심이 깊다고 생각되어진다. 근래에 와서는 베일을 쓰지 않는 여성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여성이 베일을 쓴다. 또 Izar로 온몸을 완전히 감싸기도 한다. 머리부터 둘러쓰고 자연스러운 주름이 생기도록 한다. 이러한 복장은 이슬람교를 가진 중동의 회교국의 복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여성들만이 입는 또하나의 중요한 복식은 카프탄으로 이것은 이슬람문화권에 널리 퍼져있는 복식이다. 머리에 쓰인 베일은 앞에서 설명한 종교적인 이유 이외에 기후의 특성 때문에 머리와 얼굴을 햇빛과 먼지로부터 보호하자는 실용적인 측면이 강하다.

최근 서구의상의 영향으로 칼라셔츠를 입고 위에는 민속의상인 Djellaba를 입기도한다. 요즘 젊은이들은 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그위에 Djellaba를 입기도 한다. 민속복식에 현대복식을 섞어 입는 것은 주로 젊은이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Djellab 안에 현대복식을 입는 것이다.

지금의 의복은 세계적으로 보편화, 공통화의 추세로 보이고 있으며 민속의상은 일상적인 의생활에서 멀어져 유물로 남겨지게 되었다.

IV. 복식의 분류

1. 민속복

모로코의 민속 의상은 모로코 독자의 문화라기 보다는 원래부터 지니고 있던 대부분의 것에 새로 유입된 외래문화와 융합된 이슬람문화적이다.²⁰⁾

민족복의 특징은, 넉넉한 장의(長衣), 직선재단인 것, 장식은 끈 끈이 주체인 것 등이다. 관의(寬衣)인 점은 아프리카의 기후풍토에 알맞은 것이나, 90%가 이슬람교도라고 하는 종교적인 배경도 간과

20) 川澄博子, 異文化への旅—モロッコ—, 『衣生活研究』 Vol.19, No.6, 1992, p41

할 수가 없다.²¹⁾

고온저습, 건조성 기후로 전신을 덮어 감싸는 복장이며 햇살은 피하고 발한을 억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이슬람교의 코란 24장 31절에는 '여자는 남편과 친척 이외의 남성에게 얼굴이나 자태를 보이지 않도록 음전하고 깊게'라는 말이 쓰여져 있어서 외출시에는 전신을 감싸는 복면포신(覆面包身)의 차림을 하는 것이 관행이다.

건조하고 더운 기후에서의 복면포신 복장은 형식적으로 비성형형(非成形成型)과 성형형(成形成型) 두 종류로 나뉜다.

비성형성이란 봉제하지 않은 커다란 천 조각을 가지고 전신이나 상반신을 혹은 머리만을 각각 덮어 감싸는 방식이며, 복면포신의 대부분도 이 형식이다. 한편 성형형은 재봉하여 특정한 모양으로 꿰맨 피복을 가지고 전신을 감싸는 방식으로 모로코의 민속복은 대부분 이 형식에 속한다.²²⁾

모로코 문화를 대표하는 민족의상인 여성용의 카프탄과 남성용의 제라바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어깨부터 발목에 이르는 장의(長衣)로 일상복은 남녀 공히, 카프탄, 제라바, 샤르왈이라 할 수 있다. 도시와 농촌의 복식이나 아랍족과 베르베르족의 복식 사이에는 뚜렷한 대비가 있다.²³⁾ 모로코의 남녀복식을 북부, 중부, 남부의 복식, 종족별 복식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남자복식

(1) 카프탄

카프탄(Kaftan, Qaftane)은 복사뼈까지의 장의

(長衣)로 모양은 직선재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길 중앙은 전부 끈으로 만든 매듭단추와 같은 끈으로 만든 루프를 사용해서 여미는데 매듭 단추의 수는 107개이다.

옷감은 양모, 또는 양모와 실크의 혼방이고 색은 백색 또는 아이보리화이트가 많다.²⁴⁾

카프탄은 특히 학자들과 고위관리들이 입는다. 이 옷의 기본 아이템은 동양에서 왔으며 소매가 넓고 칼라가 없는 양질의 천으로 만들어진 가운의 종류이다. 작고 동그란 단추를 허리선까지만 열어놓는 경우 카프탄 파라이아(qaftane farajiya)라고 부른다. 가장자리는 같은색 실크 브레이드(꼬아 단 끈)로 마감한다(그림1).

카프탄은 여자들도 입는데 이때는 브레이드와 엷징으로 풍성하게 장식하며 호화로운 벨벳이나 고가의 브로케이드(금은실을 섞어 짠 비단)로 만들어진다. 위에는 가볍고 투명한 소재로 카프탄과 똑같이 재단된 옷옷 파라이아(farajiya)를 입는다.²⁵⁾

(2) 제라바

평상시 외출복인 제라바(djellaba, gelabiya, jellaba)는 카프탄 위에 입는 후드가 달린 상의(上衣)로 카프탄과의 차이는 후드가 달린다는 점과 23cm의 트임만으로 나머지는 봉합되어 있다. 옷이 붙은 곳에서 5cm 내려온 곳에 4개의 매듭단추, 그리고 2cm 간격을 두고 18개의 매듭단추, 거기서 2cm 내려온 곳을 빗장처럼 꿰매어 고정시키고 있다. 꿰맨 자리를 가리는 끈은 0.3cm로 가늘며 카프탄과 같이 호화스러운 끈은 사용하지는 않았다.²⁶⁾

모직 또는 면직의 다양한 색상의 제라바를 계절에 맞게 입는데, 흰색이 가장 일반적이며 서구식의

21) 松本敏子, 전계서, p.39.

22) 小川安朗, 「世界民族服飾集成」(동경: 文化出版局, 平成3年), p.77.

23) Robert Harrold, 「Folk Costumes of The World」(LD: BLANDFORD, 1988), p.192.

24) 松本敏子, 전계서, p.35.

25) JEAN BESANCENOT, 「Costume of Morocco」(Aix-en-Provence: ÉDISUD, 1990), p.140.

26) 松本敏子, 전계서, p.35.

복이나 소매 혹은 민소매의 옷웃 위에 덧입는다.

북부에서는 특별한 경우에 줄무늬 제라바를 입고 무거운 겐사로 만들어진다. 남부에서는 제라바 대신 데라(derraa)라고 알려져있는 푸른 면소재의 길고 헐렁한 셔츠를 입는다. 이 데라와 함께 남자들은 태양이나 모래폭풍을 막기 위해 얼굴과 목둘레에 세쉬(shesh)라고 불리는 흰색 혹은 푸른색의 긴 스카프를 두른다.²⁷⁾

농촌지역에서는 개방형 옷웃인 부르너(burnous)를 제라바위에 덧입는다. 도회지에서는 푸른색 바탕에 진홍색 실로 끝장식을 한 제라바를 입는다.²⁸⁾

〈그림2〉의 제라바와 세람(selham)으로 이루어졌고 가장 넓게 퍼진 형태의 복장을 보여준다.

천은 수입된 것(우스툼이나 플란넬)이거나 그 지방에서 만드는 모직물이며 계절에 따라 다르다.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색깔을 선택할 수 있다. 흰색은 늘 귀족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보통사람들은 줄무늬 제라바를 입는다.

(3) 세람

세람(selham)은 헐렁하고 소매없는 외투로서 큰 실크 방울술(bellouta)로 장식된 모자가 달려 있다. 그것은 앞부분이 열려있지만 15cm 정도되는 긴 끈(sder)으로 가슴부분이 덮인다. 가장자리는 같은색 실크 끈으로 장식된다. 트레이퍼리의 기술적인 효과를 살리면서 세람을 입는다. 트레이퍼리는 개개인의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면서 옷의 원형을 알아보는게 어려울 정도이다. 〈그림2〉에서 보듯이 트레이퍼리는 어깨너머로 넘겨진다. 두건은 뒤쪽으로 낮게 떨어지고 사이드패널 중의 하나는 한쪽어깨에서 다른쪽 어깨로 넘어간다. 방한용 세람은 짙은색

천(검은색이나 네이비 블루)으로 만들어진다. 여름에는 흰색의 모직천으로 만들어진다.²⁹⁾

(4) 간도라

카프탄과 제바라 외에 간도라가 있다. 모양은 폭이 넓어서 141cm의 품이며 소매는 이어 재단하여 만들고, 앞몸판 중앙은 목에서 44cm까지 트고 나머지 밑단까지 봉합한다. 밑단 중앙에 25cm의 슬릿이 있다. 웨덴자리에는 간도라의 줄무늬에 맞추어서 아이보리화이트와 옅은 회색의 겐사로 짠 끈이 덮여 있다(그림3).³⁰⁾

(5) 사

도시시민들은 사(ksa)를 입는다. 이것은 길고 가벼운 모직천으로 종종 가로 줄무늬가 있고 길이 5~6미터, 넓이 1.8미터쯤 되며 바탕과 같은 색의 실크밴드가 있다. 이것은 전통적 규격에 따라 몸과 머리에 걸친다. 과거에는 무거운 모직으로 만들어졌고, 하이크(haik)라고 했다.

Sahel 지방의 주요한 유목 집단인 Tuareg족 남성의 사(kas)는 면 또는 모직물에 인디고 블루로 염색된다. 길이가 6야드(5.5m)쯤 되며 쿨아(kumya)라고 하는 롱스커트나 바지 위에 입는다.³¹⁾ 아직 많은 시골 모로코인들은 이런 형태의 옷을 입는다. 그러나 가볍고 open-weave 된 소재의 사(ksa)는 도시에서는 여전히 흰색 외에는 아무 색도 입지 않는 고위관리들의 특권으로 남아있다. 사(ksa)위에는 같은 소재의 모직천으로 만든 세람을 어깨에 걸쳐서 주름을 잡아 입는다. 공식적인 행사 때는 더욱 장식을 해서 단순히 머리에 미끄러지게만 한다.³²⁾

(6) 하이크

27) Robert Harrold, 전게서, p.193.

28) Frances Kennett with Caroline MacDonald-Haig, 「World dress」 (LONDON : Mitchell Beazley, 1994), p.79.

29) JEAN BESANCENOT, 전게서, p.139.

30) 松本敏子, 전게서, p.36.

31) Frances Kennett with Caroline MacDonald-Haig, 전게서, p.81.

32) JEAN BESANCENOT, 전게서, p.141.

하이크(haik)는 모직 담요로, 4~5미터 길이며, Chaouia 인은 드레이퍼리 방식으로 몸을 감싸고 한 쪽 끝을 어깨위로 걸쳤다. 전체적인 인상은 로마 토가의 드레이퍼리를 회상시킨다. 하이크를 셔츠 위에 입을 수도 있으나, 때로는 하나만 입기도 했다. Chaouia 에 의해 사용된 것은 다양한 색상의 줄무늬로, 빨강과 오렌지색이 지배적이며 매우 장식적이다(그림4).³³⁾

(7) 샤르왈

상의 밑에 샤르왈(chalwar, seroval)라고 부르는 혈령한 바지를 남녀가 모두 입는다. 62cm 폭의 큰 삼각형의 이어댄 천조각이 사타구니 밑에 붙어 있다. 그리고 이 샤르왈에 비로소 깊숙한 포켓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카프탄, 간도라, 제라바에도 주머니 입구는 열려 있으나 구멍만 나 있을 뿐, 무척이나 경계심이 많아서, 가장 안쪽에 입는 옷에 포켓을 만들고, 상의에서 손을 넣어 거기에 지갑이나 귀중품을 넣는 착의형태(着衣形態)이다. 천은 백색의 무명이 많다(그림5).³⁴⁾

상인들과 부유층의 옷은 네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즉, 바지 두 개의 조끼, 재킷이며 <그림5>에서 볼 수 있다. 샤르왈은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볼 수 있는 바지이다. 바지는 넓게 재단이 되었으며 허리는 끝에 수장식이 달린 끈(tekka)으로 조여진다. 이 바지의 다리부분은 좁고 엉덩이 부분은 뒤에 아주 낮게 늘어진다.

(8) 기타

차머(tchamir): 넓은 소매, 흰색면으로 만들어진 긴 셔츠이다. 좁은 소매를 입어야 할 때는 소매를 손목밴드로 묶는다. 작은 스탠드업칼라(randa)는 옆이 딱히고 레이스로 테두리가 장식된다.

조끼(bdaiyat): 두 개 중에 안쪽 것이 버튼이 채워져 있고, 바깥쪽의 것은 열려있다. 멘탄(mentan)

이나 멘탈(mental)이라는 재킷은 길고 좁은 소매는 손목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찢어졌고 버튼으로 고정된다. 이 재킷은 목의 앞부분에서 단추 하나로 닫힌다. 자바두리(jabadouli)라는 셔츠로 대체될 수도 있는데 이 셔츠는 깃이 없고 소매는 좁으며 팔꿈치 아래에 버튼이 달려있다. 이 셔츠는 양옆이 약간 찢어졌고 앞은 완전히 열렸으며 윗 부분은 멘탈처럼 고정되어있다.

모로코복식을 북부 모로코민족, 중부 모로코민족, 남부 오아시스정착민족, 유목민으로 분류하여 복식을 살펴 보면 <그림6>의 Meknassa 남성은 북부 모로코 유형에 속한다. 줄무늬 제라바는 도시인의 제라바와 산간지대 사람들의 매우 짧은 제라바 사이의 과도기적 단계의 성질을 띠고 있다. 갈색 부르너(burnous, 두건 달린 겹옷으로 아라비아 사람이 입는 망토)는 어깨를 가로질러 걸친 것을 하이두스(haidous)라고 하며, 천은 염소의 털로 짰다. 발에는 irkassene을 신고 있다.

Berber들의 부르너를 입는 방법은 옆 자락을 팔 또는 어깨 위로 넘겨 드레이퍼리의 효과를 만들어 냈다.

Riffian 의상은 좁은 줄무늬가 있는 어두운 갈색이나 검은 색의 모직으로 만들어지는데 봉합선을 따라 자수를 놓고, 색깔 있는 팜팜(방울술, 모직으로 만든 작은 외복 장식용 방울)으로 장식하였다.

과거에는 목이 나오는 트인 부분으로 한 팔을 밖으로 빼어 입고, 다루엣(darouet)이라는 밝게 색칠된 패턴의 무거운 가죽 벨트로 허리를 묶었다.

중부 모로코의 산간부족의 복식은 <그림7>의 중부 Atlas 남성의상은 제라바와 부르너로 되어 있고, 후자는 흰 모로 만들며 aselham 또는 khaddoun이라 하고 염소나 낙타 털로 만들면 Khaidous 또는 azennar라고 하고 셔츠, 바지와 함께 입었다. 시골산간의 제라바는 타제라비(tajellabit)라 불렸는데

33) 상계서, p.150.

34) 松本徹子, 전계서, p.37.

모직 하이크도 입었다.

High Atlas 의 Ait Oumalou의 산간 부족이 입은 옷은 <그림8>의 타반(tabbane)이다. 이것은 길고 두꺼운 속바지(drawers)로 자연 모로 짜는데 갈색과 흰색의 줄무늬가 있다.

Anti-Atlas의 민속 문화, 특히 Ait Ouazouguit 시골에서 대표적인 옷은 아크니(Akhnif, 복수 : ikhnafen)로 목동들이 입는 검은 염소털 망토인데 섬세하게 무늬를 그린 붉은 오렌지색 반달로 장식되어 있다. 망토를 장식하는 오렌지색의 반달장식은 화원을 흐르는 강을 나타낸다고 한다. 후드(aqueimoune)에는 커다란 장식 술이 달려있는데, 모직 술로 가장자리 처리를 하였다. 망토는 모슬렘과 유대인의 모든 남성이 입었고, 어린이를 위해 작은 사이즈도 만들었다.³⁵⁾

사하라의 유목민의 의상은 매우 단순하며, 차바(chaba) 또는 데라(derea)라 불리는 넉넉한 튜닉을 입는다. 대략 가로 세로 2.5미터와 1.6미터의 치수이다. 중앙의 열린 구멍으로 머리가 들어가며 몸의 길이만큼 아래로 늘어뜨리게 된다. 양쪽은 바닥에서 단순히 매듭만 지어져있거나 몇 센티미터 위로 바느질되어 있다. 차바는 한가지 패턴으로만 되어 있지만 서로 다른 옷감을 써서 만들 수 있으며 흰색면으로 만들었으면 bassai, 보통의 푸른 면으로 만들었으면 khount, Mauritania에서 짙은 호화로운 옷감인 양질의 면으로 만들면 dimi, 화려하게 수를 넣은 린넨 천으로 만든 것은 bakha 이다.³⁶⁾

남부 모로코의 Tafilet에 의상(그림9)은 스타일이 일률적이고, 자수로 장식되어 있다. 붉은 색이나 검은 색으로 만들고 체인스티치(chain stitch)와 퍼더스티치(feather stitch)가 되어 있으며, 중 유럽의 민속 자수와 비슷하다. 다리가 긴 샤르왈 위로 소매

가 넓은 데라라는 셔츠를 입는데, 수를 넣은 캡인 tabouch를 쓰면 몸단장이 끝난다. Hizam nemri 라는 벨트는 두꺼운 끈으로 만들어져 있다.

2) 여자복식

(1) 카프탄과 피나

여성의 카프탄은 남성과 모양은 같으나 착장 형태가 다르다. 눈 아래를 가리는 천인 응게브를 늘어뜨리고 가슴에도 유방의 볼록함을 감추기 위해 천을 늘어뜨리는 것이다. <그림10>의 카프탄은 호화스러운 두툼한 견직물이고 색은 황금색, 무늬는 장미꽃이다. 겹옷으로 걸의 바탕색과 같은 색의 생명주 안감이 전면에 대어져 있다. 길은 3.5cm 의 스탠드칼라이고 앞몸판 중앙은 모두 트이고, 잠자리 머리 모양의 매듭단추가 103개 달려 있다. 장식의 끈 끈은 앞몸판 중앙과 여러곳에 장식되는데 소매부리는 1.7cm 칼라둘레는 1cm, 어깨, 소매에 이어낸 천은 0.7cm 이다. 끈 끈은 바탕색인 황금색과 장미잎 사귀의 녹색을 사용한 명주끈으로 만들어져 있다.³⁷⁾

카프탄은 속에 입는 옷으로 퀴츠(quich)라 부르는 가벼운 소재의 옷이 있는데 이는 꼭 무릎길이까지 오는 샤르왈이라는 헐렁하고 커다란 바지위에 걸쳐지게 된다. 옛 스타일의 무거운 직물소재에 무척 공들여진 카프탄은 현재 신부들만 입는다.³⁸⁾

<그림11>은 여자가 집에서 입는 옷이다. 도시여자들은 카프탄을 입는데 여자들의 경우 벨벳이나 실크 브로케이드로 만들 수 있다. 카프탄 위에는 머슬린으로 만들어진 가벼운 피나(dfina)를 입는다. 모양은 카프탄과 같고 허리까지 버튼이 있으며 옆과 앞에 트임 부분으로 카프탄이 보인다.

집안 일을 할 때는 카프탄과 피나를 당겨서 옷의 일부를 벨트안으로 감아 넣는다.

35) JEAN BESANCENOT, 전계서, P.171.

36) 상계서, P.174.

37) 松本敏子, 전계서, P.38.

38) Robert Harrold, 전계서, P.192.

(2) 헨디라와 레담

서민여자의 옷차림은 헨디라(Handilla:망토)와 레담(Letham)이다.

헨디라는 후드가 붙은 가운데형의 옷으로 통수(筒袖)의 옷이다. 차드리(아프카니스탄, chadri), 차르샤프(이란, charshaf) 등 팔과 무릎까지 안으로 감싸고 있는 형태와는 달리 양팔이 자유롭다. 길이는 보통 발목까지이고 단끝 양쪽이 갈라져 있어서 걷기 쉽고 전체적으로 넉넉하게 봉제되어져있다. 재료는 촘촘한 면, 모직, 화학섬유이며, 색은 흰색, 올리브색, 파란색 등이 많으며, 무지천이다. 후드는 비교적 대형이고 같은 천으로 만들어진다.

레담은 정방형의 보자기를 대각선으로 접은 삼각형의 옷감으로 만든 복면포(覆面布)이다. 면, 견, 레이스, 편물등 여러 가지 옷감, 다양한 색, 무늬, 문양이 이용되고 착장방법은 헨디라를 입고 후드를 깊게 써서 눈 위까지의 머리 부분을 감싼 다음 레담으로 코 아래 부분을 마스크처럼 감싼 머리 뒤에서 묶고 삼각의 모서리 부분을 가슴위로 늘어뜨리는 것인데 그렇게 하여 눈 만이 보이고 다른 부분은 전부 감싸게 되는 것이다.³⁹⁾

(3) 제라바

도시의 여인들은 면이나 개버던으로 된 흰색, 회색, 청색의 험렁한 제라바를 입고 얼굴에는 짧은 흰색 혹은 검은색의 면 베일을 고정시켜 쓴다.⁴⁰⁾

여성의 제라바는 남성것과 큰 차이는 없고 다만 후드의 끝에 아름답고 긴 술을 다는 것과 후드를 착용하는 형태가 다르다. 즉, 특수한 고정도구를 사용하여 머리 위의 천이 일직선으로 뽀뽀하게 당겨지도록 입는다. 그리고 눈 아래, 가슴팍을 가리는 천을 늘어뜨린다. 젊은 여성은 스카프를 머리에 감은

모습도 볼 수 있다.⁴¹⁾ 기혼의 베르베르족 여인들은 베일을 벗고 다닐 수도 있다.

(4) 하이크

도시의 여성들은 몸을 감싸는 외투인 하이크(haik)를 서구식 옷 위에 종종 덧입는다. 하이크는 흰색 혹은 검은색의 면, 모 또는 면과 견 혼방으로 만들어지며 이 외투의 주름은 지방마다 다르다. 북서 아프리카의 하이크는 로마 토가(toga)의 변형이다. 어깨 위에서 편으로 고정되는데 그리스나 비잔틴에 그 유래를 두고 있다. 남부 모로코에서는 이자르(izar)라고 불리며 튀니지의 멜리아(mellia)와 흡사한 형태이다. 색상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도시여자들의 외출복은 5×1.6미터되는 크기의 모직천으로 만든 하이크로 온 몸을 감싸서 밖에서 몸의 형태와 특징을 보는 것을 막는다(그림12a).

도시여자들의 하이크는 흰색이고 가끔 파랗거나 빨간 줄무늬가 섞여 있기도 하다. Taroudant 의 검은 하이크는 타멜하프(tamelhaft)라고 불린다(그림12b).⁴²⁾

(5) 샤르왈

여성의 샤르왈은 남성의 것과 다르지 않으나 <그림13>에서 볼 수 있듯이 베르베르족 여성이 입고 있는 것은 옆선 밑단에 황, 적, 녹색, 백, 금사 등 칼라풀한 끈 끈을 사용하여 화려한 장식을 하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오래된 샤르왈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변경(邊境)의 땅에서 옮겨와 외계(外界)와의 접촉이 거의 없었던 베르베르족의 마을에 남겨진 것이라고 생각된다.⁴³⁾

카프탄과는 별도로 이자르(izar)와 하이크(haik) 등 다른 일상복장들은 험렁한 치마같은 주머니 바지(baggy trousers)나 샤르왈(chalwar)을 포함한

39) 小川安期, 전계서, P.92.

40) Robert Harrold, 전계서, p.192.

41) 松本敏子, 전계서, P.38.

42) JEAN BESANCENOT, 전계서, P.142.

43) 松本敏子, 전계서, P.38.

다. 몸에 꼭끼는 볼레로 자켓은 샤르왈과 함께 입는데 이것은 터키 양식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것으로, 목에는 구부린 금실을 두루고 앞여밈은 열고 소맷부리는 접어 올려 입는다.⁴⁴⁾

(6) 속옷

속옷은 차머(tchamir) 혹은 타티야(tahtiya)라는 시프트로 구성되며, 피케나 레이스 또는 수놓아진 것이 달렸다. 가장 안쪽에 입는 속바지 샤르왈위에 입는다. 이 옷은 남성용 샤르왈과 같은 모양이지만 질 좋은 실크로 만든다.⁴⁵⁾

중부 모로코의 산간 부족중 하나인 Ait Mguild 부족은 중부 Atlas 의 경사에 정착했는데, <그림14>에서 보이는 여인은 Ait Mouli 의 하위질단으로, 이자르를 입고 있는데, 이는 긴 천조각으로 몸을 감싸는 것이다. 천의 사이즈와 재료, 주름을 드리운(draped)방식 역시 다를 수 있으나 그리스의 키톤(chiton)과 로마의 페플럼(peplum)에 영향을 받았으며, 고대 지중해 사람들로부터 내려온 수 천년 된 전통이 살아있음을 나타낸다.⁴⁶⁾

Berber 여성들은 그들이 입은 것 중 어느 것도 바느질된 것은 없고 모두 걸쳐 늘어뜨려 입었다. 면직 이자르(izar)는 대략 길이 4.5미터, 폭 1.4미터 정도의 사이즈로 몸을 덮는다. 허리에는 타고스트(taggoust)라는 벨트로 묶고 어깨 앞에는 두 개의 장식핀(tisernas)으로 고정시킨다. 이 두 보석은 망토로 가리나, 둘을 연결한 은줄은 보인다. 망토는 아랍어로 헨디라(hendir)라고 불리고, Berber의 Tamazirht 방언으로는 타미자르(tamizart)라고 불리는데 이는 단순히 작은 모직천으로 된 담요같은 것으로 Berber 의상의 기본요소이다. 이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입었는데, 어깨뒤로 걸치고, 턱 밑에서 두 줄로 묶고, 머리위로해서 앞쪽으로 당기는 방법

등이다. 이것은 아주 기능적인 의복으로 Atlas 의 고원에 잘 맞았는데 이 전통적 담요는 모든 고산 지역에서 볼 수 있으며 이들 지역에서는 하루 동안에 호된 찬바람과 작열하는 태양의 열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Berber 지역 모직 망토를 장식하는 패턴은 부족마다 다르며 부족의 정체성을 표시하는 데 사용된다. Ait Mguiddml 의 망토는 작은 기하학적 무늬의 일곱 개의 횡단선이 있는 줄무늬이다. 이것들을 안쪽으로 향하게 해서 입었는데, 바깥쪽은 슬과 반짝이는 금속 조각으로 장식하였다.

여성들은 가장 추울 때 입는 모직으로 된 두꺼운 하야크는 모직천의 폭을 가로질러 두 줄의 넓은 보라빛 붉은 줄이 있는데, 하야크를 드리웠을 때 입은 사람의 몸을 따라 수직으로 된다. 망토는 검은색, 흰색, 파랑색의 줄무늬가 있으며 좀 덜 추운 날 입는다.

<그림15>의 Ait Atta의 Berber 여인들이 걸친 파란 이자르(izar)는 인디고(남색)로 염색하는데 남부 모로코 전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촉제에는 흰색이 원칙이다.⁴⁷⁾ 남부오아시스 지역은 민속 전통의 흔적이 보이고 다른 지역보다 훨씬 잘 보존되어있다.

Ida ou Nadif 는 Wadi Souss 의 남쪽의 고도 1000미터에 육박하는 산간 지역이다. 위도상 남쪽에 위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이 혹독하여 Atlas 의 산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두꺼운 모직 옷을 입는다. 소녀가 입고 있는 부피가 큰 하이크는 아파구(afaggou)라 불린다. 4미터에 폭이 1.3미터이며 가장자리와 모서리가 여러 색상의 정교하게 만든 모티브로 장식되어있고 다양한 기하학적 문양들로 짜여있으며 섬세하게 자수 하였다. 아파구는 허리에서 커다란 모직 벨트(tassmert)로 고정하여, 주

44) Frances Kennett with Caroline MacDonald-Haig, 전게서, P.79.

45) JEAN BESANCENOT, 전게서, P.143.

46) 상계서, P.154.

47) 상계서, P.160.

름이 잡힌 전체적 모양을 더욱 강조한다(그림16).⁴⁸⁾

남부 모로코의 유대인 여성들은 주름진 의상을 입는 조상들의 관습을 따른다.

모로코의 극남쪽에 사는 유대인 여성들이 입는 주름진 의상은 Berber 여성들이 입는 것과 동일하다.

2. 축제의 종류와 복식

모로코의 전통 축제를 뜻하는 모로코어인 '무셈(moussems)'은 옛 아랍어의 '모심(mawsim)'에서 나온 말로, 정기적으로 열리는 행사를 뜻하며⁴⁹⁾, 이외에도 각 지역에서 풍년을 자축하는 의미의 강도 높은 축제들도 무셈이라 부르고 있다. 축제 기간에는 민속행사, 예술전시회, 농사에 관련된 전시회, 여행업, 각종 행사들이 동반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적인 친교와 악마를 쫓고 악의 힘에서 야기되었던 해로운 영향을 치료하기 위해서 성인들의 무덤을 참배하였다⁵⁰⁾.

1) 임미실(Imichil)의 약혼자를 위한 축제

매년 9월의 말경이 되면, 무셈의 일종인 임미실 축제는 16세기에 있었던 포르투갈의 침입시 저항하여 승배를 받고있는 시디 아메드 마니(Sidi Ahmed Mghanni) 성인의 묘지로 제물을 바치기 위해 순례를 나선 사람들에 의해서 열리는데, 가축, 식품, 농기구, 세공품, 덮개와 양탄자, 지방 공예품, 옷, 신발 등을 진열해두며, 물물교환을 하면서 시장을 형성한다.

축제의 장소는 시장 형성뿐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 친척,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사교의 장소이기도 하고, 젊은 커플들의 결혼약속을 공증해주는 '아돌(adouls)'이라는 장소를 만들

어내기도 하였다. 이들은 '리탐(litham)'이라는 스카프로 눈 아래까지를 가리며, 2~3 그름을 만들어 캠프 사이를 산책을 하면서, 젊은 청년들의 구애를 받는다.

아길루(aquilous)를 머리에 쓴 사람들은 과부나 이혼 한 여자들이다. 이 두건은 그 끝이 뽀족하고, 면사나 비단으로 짠 여러 색의 긴 끈이 두건의 들레에 장식되어 있다.

여성들의 옷차림을 살펴보면, 헨디라(hendirra)는 아이트 하디두 지역의 여자들이 착용하는 두건이 달린 망토인데, 아이트 야자(Ait Yazza)족은 검정색과 흰색의 넓은 줄무늬가 있는 케이프를 입는 반면, 아이트 브라힘(Ait Brahim)족은 짙은 남색의 케이프를 입고 있는데, 여기에는 가느다란 흰색의 줄무늬가 들어가 있다. 이 케이프 아래로는 흰색이나 검정색의 커다란 면 블라우스인 리자(lizzar)를 입고, 그 위로 허리띠를 매는데, 허리 띠의 색상은 각 부족마다 다르다. 또한, 이들은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게 눈썹 위까지 내려오도록 머리 전체를 덮는 머리쓰개를 하고 있으며, 호박으로 만든 목걸이를 한다.

임미실의 노인들은 황금색이나 밤색, 녹색 등의 아름다운 색상의 디엘라바(diellaba : 후드가 달린 겹 옷)를 입고 턱번을 착용하고 있다.

2) 페(Fés)의 성자, 몰라이 아드리스 2세

(Moulay Idriss II el-Azhar)를 기리는 축제 매년 9월마다 일주일 동안 열리는 종교 행사로, 이슬람의 수호자 몰라이 아드리스 2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축제이다. 춤추고, 노래하는 행렬의 선두에는 빨간 터어키 모자와 하얀 색의 디엘라바(diellaba : 모로코의 긴 옷)를 입은 코란 성경학교 학생들이 있고, 매년 직조공들은 영구대의 커버를

48) 상계서, P.168.

49) Marie-Pascale Rauzier, 「Moussems Et Fêtes Traditionnelles Au Maroc」 (Paris : ACR Edition, 1991), p.8.

50) James F. Jeres, 전계서, p.138.

금실로 수놓아 새로 만들어 치장하며, 아침이 되면 영묘(靈廟)의 식장에는 하얀 옷을 입은 성자의 후손들이 모여 신의 은총을 기원하며 제를 올린다.

3) 굴리민(Goulimine)지방의 전통 축제

낙타 시장으로 유명한 굴리민 축제는 '푸른 옷의 남자들'이라고 불리는 사하라의 모든 낙타 상인들이 모이는데⁵¹⁾, 낙타를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들 모두 짙은 남색으로 차려입고, 푸른색이나 검정색의 주머니를 차고 있다. 성자 시디 아메드 아나로(Sidi Ahmed Aanaro)의 기념당에는 후손들이 하얀 옷을 입고 제사를 지내며, 낙타들이 제물로 바쳐진다.

4) 살레(Salé) 지방의 양초 축제

양초 축제는 이 도시의 주인이자 성자였던 시디 압델라 벤 하센(Sidi Abdellah ben Hassem)과 뱃사공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수가 놓인 좋은 옷으로 차려입은 뱃사공들과 피리 부는 사람, 북을 치는 사람, 장식 깃발을 든 사람들이 그들의 우두머리 집으로 양초를 옮기는 행렬을 하며, 옮겨진 양초들은 성자의 후손들이 능 안에서 기도를 하는 동안 묘지 아래에 걸려 있다. 회교 달력으로 설날 이후 열흘이 되면, 이 양초들은 다시 우두머리의 집으로 옮겨져 불을 밝히게 된다.

5) 장미 축제

장미의 수확과 관련된 축제로, 종이로 만든 거대한 장미와 염색된 양탄자에서 수많은 행사가 열린다. 50년 전부터 봄마다 엘헬라 am구나(Elkelaa M'Gouna) 지방에서 열리는 이 축제는 10세기 때 내려오는 전설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마호멧의 출생지인 메카(Mecque)에서 돌아오는 길에, 다마스(Damas) 지방의 장미들이 내뿜는 향기와 그 아름다움에 혹해서, 그 곳에 심어진 장미 가지를 꺾어

온 것이 시초였다고 한다⁵²⁾.

6세기 전부터 고도 150m에서 자란 수 천 송이의 야생 장미는 봄에 주민들에 의해서 수거된 대부분의 장미가 장미 향수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 축제를 위해서 젊은 처녀들은 아름다운 장미와 보석으로 치장을 하는데, 축제일의 여왕인 '미스 장미'는 이 지역의 처녀들 가운데에서 선정된다. 이들은 여러 가지 색의 털실과 함께 땀을 머리를 등에 늘어뜨리고, 발에는 끝이 정사각형인 폭신한 터어키 신발을 신고 있는데, 이 신발에는 번쩍이는 금속들이 화려하게 수놓아져 있다.

6) 왕실 축제

왕실 축제는 1961년 3월 3일에 몰라이 하센(Moulay Hassen)왕자의 왕위 계승식에서 유래된 축제이다. 부친인 모하메드(Mohammed) V세가 승하한지 5일만에 가진 계승식은 모로코 시민에게도 기쁨과 환희에 찬 축제였는데, 어린이들과 군악대, 불꽃놀이, 춤, 환영 리셉션 등의 형식으로 치러졌다. 모로코의 1,580개 지역의 우두머리들이 모두 궁전에 모여 왕에 대한 충성과 영원한 평화를 기원하며, 궁 밖의 큰 광장에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얀 옷을 차려 입은 귀족들이 지방별로 줄을 서서 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다.

7) 녹색 행진

국가 축제인 녹색 행진은 1975년 10월 16일에 있었던 핫산(Hassen) II세의 사하라와의 외교동맹을 사실화하기 위한 행진을 기념하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상징적인 행렬로 보여주는데, 모로코의 여러 도시에서는 이 날, 사하라의 전통의상을 입은 행렬을 볼 수 있다.

8) 할레

51) 상계서, p.142.

52) 상계서, p.150.

모로코의 가족적인 축제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단계별로 베풀어지는 출생, 할례, 결혼과 같은 축제들을 말하는데, 그 중 할례는 최고 공동체의 대표적인 의식이다.

할례는 일반적으로 각 지방마다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전통을 중시하는 지역에서는 할례식 전날, 아이를 깨끗이 목욕시키고 흰옷으로 갈아 입힌 후, 아이의 행복과 축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아이의 손을 해나 염료로 물을 들여주고, 아이의 머리를 다듬어준다. 할례식 날에는 아이에게 특별한 의상을 입히는데, 넉넉한 와이셔츠 모양의 세왈(serwal)과 녹색 벨벳 조끼, 금사로 수가 놓여진 녹색의 터키 모자를 씌운다.

9) 결혼

결혼 풍속은 각 지역에 따라 다양하며, 결혼 의상도 다양한데, 특히 아틀라스 고지대의 베르베르인들의 결혼은 매우 의미있고, 많은 상징성을 지닌다.

결혼식 첫날 의식의 시작은 신부의 어머니, 자매, 친구들이 신부를 하만(hamman)이라 불리는 터키 목욕탕으로 트럼펫과 북소리에 맞춰 데려가는 것이며, 목욕을 끝낸 신부와 차를 함께 나누어 마신다. 이튿날은 녹색으로 몸을 치장한 나가파(n'gaffats : 신부 곁에서 의식을 주도해주는 여성 전문 결혼 진행원)들의 도움을 받아 해나 염료로 치장을 하는 날이다. 나가파들은 신부화장과 손과 발의 치장을 해 주며, 신부가 착용할 보석과 신부가 입어야 할 화려하고 멋진 옷들을 골라 신부에게 입혀준다. 셋째날 저녁에는 신랑과 그 가족들이 신부를 위한 결혼 지참물을 가지고 신부집으로 오며, 북소리에 맞춰서 이들은 결혼에 관한 내용이 있는 코란 제1장, '파티야(fatiha)'를 합창한다. 신부가 아버지나 남자 형제가 없는 경우에는 증인 12명을 세워 결혼 증서

에 사인을 한다. 다시 축제는 신랑집으로 이어져서 열리는데, 신부는 '미다(mida)'라고 불리는 전통가마에 태워지는데, 이 가마의 형태와 재료는 결혼 당사자들의 신분적, 사회적 계층에 따라 다양하다⁵³⁾. 또한, 근래에도 전통을 고수하는 가정에서는 결혼식이 치러지는 7일간의 저녁마다 갈아입을 의상을 위하여, '일곱 벌의 혼수 드레스'의 전통을 고집하고 있기도 하다.

V. 장식 및 부속품

1. 브로치

모로코의 여성들에게 브로치는 여성에게 다산의 상징이며, 악의 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피블라(fibula)⁵⁴⁾는 대개 그 형태는 둥글며, 끝이 열려진 링이 있는 고정 핀을 포함한다.

브로치는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크기는 3~5cm 정도의 작은 것에서부터 티즈니(Tiznit)의 브로치처럼 25cm에 이르는 것도 있다. 동부지역에서의 브로치들은 가문의 외관을 표시하는데⁵⁵⁾, 편평한 부분에는 바늘이 붙어있고 주조된 부조의 세부는 아주 다양하다. 십자 모양 또는 대칭된 타원형의 부조를 중심부에는 곤봉모양, 작은 꽃, 초승달 모양들이 밖을 향해 뻗어있는 모양을 하고 있으며, 바늘은 브로치의 편평한 사다리꼴 모양 위에 작은 꽃 장식으로 고정되어있다. 아틀라스와 사로의 베르베르인들의 브로치는 종종 목직의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기도한다.

드라(Draa)계곡의 브로치 모양은 삼각형인데, 지리학적 상징성이 깃들여진 것이다. 제벨 사고(Jebel Sagho) 지역에서의 삼각형 브로치는 다섯 손가락을 연상하게 하는 다섯 개의 가지가 붙어있

53) 상계서, p.183.

54) 상계서, p.92.

55) 상계서, p.135.

는데, 이는 '사악한 눈'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⁵⁶⁾

가장 전통적인 브로치에는 세 가지의 형태가 있다. 첫째는 30cm 가량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티즈니의 브로치들로 금속판에 녹색과 노란색의 유약을 입힌 돌기가 있다.

두 번째로는 티제자이 타우카(tizerzai taouka)로 베르베르어로 벌레 먹은 브로치라는 뜻이다. 아틀라스 남부에서 퍼져있는 이러한 브로치는 티즈니의 브로치와 비슷하나 무겁고 많은 구멍이 뚫려, 벌레 먹은 듯한 낡은 금속판과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다. 핀은 회교를 상징하는 두 개의 초승달 모양에 둘러싸인 듯한 기이한 형태를 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남부 오아시스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이중으로 된 삼각형 브로치로, 얇은 판 위에 그림이 새겨져 있다. 브로치의 들레는 톱니 모양을 하고 있다. 브로치 위의 한 가운데에는 원뿔모양이 있으며, 그 주위로 몇 개의 돌기가 솟아있는 형태이다(그림 19).

2. 목걸이와 가슴장신구

동부지역의 목걸이는 호박으로 특징 지워지는데 펜던트나 은으로 만든 진주 장식과 함께 구성된다. 노란색과 갈색 호박은 서부 지역에서는 거대한 목걸이 모양으로 사용되고, 남부지역에서는 상징적인 목걸이로 직사각형의 펜던트 금속장식이 3~4개 달려있는데, 니엘로 상감을 입힌 것들이 전통적인 것이며, 호박 구슬, 막대형의 산호, 조개, 그 외의 각종 구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8 ~ 19세기의 목걸이를 구슬과 부속들이 달려 있는 조합된 형태이다. 현란한 색채와 함께 목걸이의 구성 요소들은 주술적으로 치유하는 힘을 함유하고 있다.⁵⁷⁾ 목걸이에 사용되는 아마존의 돌은 치유하는 힘을 가졌고, 철 구슬은 착용자에게 더 많은 힘을 주입시킨다⁵⁸⁾고 믿었다.

20세기 초기의 리프 지역의 자에르자인(Zaerzaine)에서는 외래적인 결혼 지참금용의 목걸이로서 다섯 개의 은 코란 상자⁵⁹⁾, 산호, 은 동전들이 은으로 된 체인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다섯이라는 숫자⁶⁰⁾는 악의 힘을 없애준다고 믿어지는 마술적인 숫자이며, 악의 기운으로부터 착용자를 보호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예들은 다섯 개의 손가락, 다섯 개의 점, 지그재그, 갈매기 무늬, 삼각형, 십자가 등의 여러 형태로 표현된다.

가슴 장신구들은 작은 금속판들에 둘러싸인 큰 금속판들을 포함한다. 아사스의 아홉 개의 상감 처리된 금속판이 달린 목걸이들은 한 가운데의 금속판만이 밑 부분이 톱니 모양이고 이중의 연결고리가 있으며, 나머지 금속판들은 둥글거나 또는 정사각형의 똑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북부지방에서는 두 개의 특이한 형태의 목걸이를 볼 수 있다. 하나는 이다(Ida)나와 셴랄(Semlai)지역의 브로치와 장식이 비슷한 목걸이로서 은이 섞인 청동 정사각형, 직사각형의 작은 펜던트 장식들에 문양이 새겨져 있다. 또 하나는 마사의 목걸이로서 8개의 둥근 장식들이 막대형의 산호로 분리되어 있는데, 장식하는 부분은 꼭 8개가 되어야 하는 특징이 있다. 전통적인 것은 돌레가 긴 나선 모양으로 장식되고, 니엘로 상감이 되어있어 매우 아름답다

56) Marie-Pascale Rauzier, 전게서, p.94.

57) 상계서, p.73.

58) 상계서, p.88.

59) 금속에 열을 가해 망치로 두드리고 자른 다음 나무 판 위에 단단하게 붙이고 유약으로 상감 세공하거나 돌로 장식한 상자

60) James F. Jeres, 전계서, p.90.

(그림16, 17, 18).

3. 머리 장신구

머리 장신구는 장식판, 왕관, 귀걸이가 걸려있는 작은 체인들로 구성되어있다. 아틀라스 지역의 머리장식은 단순하게 자르거나 용접하거나 또는 주조한 은 부속의 모음으로 구성되어있다. 드라게곡의 장식은 머리띠나 땀기 장식에서 '하르타니아트' 혹은 여인들의 구슬, 특히 산호와 작은 주화들에 대한 편향된 기호를 반영하고 있다.⁶¹⁾

타프라우 지역에서는 유약으로 윤색된 금속판을 경첩으로 이어 구성된 모양이 특징적인데, 체인과 작은 갈고리들, 니엘로 상감으로된 금속 장식들, 산호 보석들이 주렁주렁 달려있어 매우 아름답다. 이 머리장식은 고정적인 형태이면서도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다(그림18).

전통적인 머리띠들은 티즈니 남부에서 많이 보이는데, 이스니(isni)라고 불리며, 다섯 개의 은으로 된 원뿔장식이 달려있고, 호박이나 홍옥수 등의 구슬을 아주 정련된 방식으로 원뿔 장식의 사이사이에 배치한 머리장식이다.⁶²⁾ 또한 타프라우에서 만들어진 은, 산호, 가죽 장식품과 원숭이 털로 만들어진 머리띠는 축제나 결혼식 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⁶³⁾

서부의 토드라 유역이 여성들은 40여 개의 주조된 링으로 머리장식을 하고 있는데, 머리띠에는 모직실로 엮은 장식 끈이 있으며, 중앙에는 은으로 된 진주 모양의 장식, 양 옆으로는 여러 가지 색으로 채색된 진주 모양의 장식이 있다.

남서부의 이미 엔 타누트에서는 금속공예의 조각된 판으로 모이며, 작은 갈고리들이 달린 다양한 형태의 체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남서부의 머리장식

은 단순한 머리띠 형태이며,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장식들을 덧붙였다.

머리장식 중 가장 고전적인 것은 메초(mechoh)라 불리는 머리 장식 끈으로 다섯 개의 가느다랗고 둥근 은판을 이어 묶은 것이다. 니엘로 상감으로 입혀진 은판 주변은 복잡한 꽃 모양의 가장자리 장식과 니엘로 상감의 마름모꼴 장신구들이 늘여져 있으며, 이 머리 장신구들은 아사스와 암멜(Ammeln) 지역에서 보인다(그림16, 17, 18, 20, 21).

4. 귀걸이

동부지역에 귀걸이는 매우 적다. 토드라 유역부근에는 원형의 무거운 주조 귀걸이가 있다. 이들은 원형으로 구멍이 뚫려 있으며, 둥근 산호 구슬로 마무리된 펜던트가 있다.

티즈니의 귀걸이는 크기가 크고, 조각 장식과 원뿔모양 장식, 유약으로 윤색된 것으로 작은 사슬들에 달려있고 유약 처리 장식이 있는 작은 귀걸이들도 많이 애용되었다. 가장 고전적인 귀걸이는 티자다드(tizadad)라고 하는데, 단순한 활 모양으로 귀걸이 안에 은장식이 달려있고 둥근 형태의 니엘로 상감이 입혀진 은 귀걸이이다. 아사스 지역에 귀걸이는 호박 구슬이나 산호, 검은 유리, 둥근 금속 장식을 줄로 매달고 있는 특이한 장식방법을 보여주고 있다.⁶⁴⁾

젊은 처녀들은 산호, 진주, 동전, 이미테이션 보석, 작은 금속판등이 조합되어진 커다란 귀걸이를 하고있다(그림16, 17, 18).

5. 팔찌

동부지역이 팔찌들은 모두 주조된 것으로 옆면이

61) Jacques Et Marie - Rose Rabaté, 전게서, p.58.

62) 상계서, p.50.

63) James F. Jeres, 전게서, p.94.

64) Jacques Et Marie - rose Rabaté, 전계서, p.55.

대체로 두툼하다. 경첩으로 이어만든 팔찌는 베르베르어로 탕벨(tambelt)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티즈니 지역에서 널리 애호되는 장신구이며, 팔찌는 항상 한 쌍으로 사용하고 있다⁶⁵⁾. 일반적으로 팔찌는 유약을 윤색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가격이 싼 압인(押印)으로 장식이 된 금속류의 것도 있다.

타할라와 티즈니 지역에 팔찌들 가운데에는 울퉁불퉁하게 화려한 부각을 새겼거나 각 기둥이 있고, 녹색, 노란색, 옅은 남색의 금속 유약으로 윤색된 아름다운 팔찌가 있다. 남부지방에서 애용되는 고전적인 팔찌의 형태는 폭이 좁고 문양이 부각된 압텐 이다, 셈탈인들은 경첩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끝이 열려져 있는 팔찌들을 끼는데, 그 중 전통적인 것들은 니엘로 상감이 되어있다. 마사 지역에서도 끝이 트여있고 주조된 팔찌들을 볼 수 있는데, 한 쪽에는 압인 장식이 되어있는 것은 북부 지방의 제작기술을 연상시키는 제작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11, 16, 22).

6. 반 지

카템(khatem)이라 불리는 모로코의 남부지역의 반지들은 끼는 방식이 다른데, 손가락에 끼거나 또는 머리장식으로 또는 목걸이로 사용하는 것이다. 아사스지역의 반지들은 니엘로 상감이 된 반지를 끼며, 동부지역의 반지들은 측면이 두툼하게 장식된 주조된 팔찌의 형태를 작은 크기로 모방한 것이 많아 육중하게 보이며, 스타일 수도 적고 장식도 단순하다.

티즈니 지역의 반지들은 대부분 녹색과 노란색의 금속 유약이 입혀져 있으며, 녹색 보석이나, 고깔 모양의 유약 장식이 있는 반지를 많이 사용한다(그림 23).

7. 신 발

모로코의 전통신발은 앞끝이 뾰족하고 뒤굽이 없으며 트인 노란가죽 슬립퍼라고 할수있으나 도시마다 모양과 장식이 약간씩 다르다. 학자나 관료 또는 축제 등 지역과 용도에 따라서 형태와 장식이 다양한 여러 종류가 있다.

- ① blari라는 노란 가죽 슬립퍼는 보통 도시에서 신는다. 이 신발은 굽 아래에서 앞으로 접혀진 검은 부분으로 신는다. 표준형과 다른점이 몇가지 있다.
- ② mseita : 학자들이 신으며 바닥이 얇고 가죽은 흰색에 가깝다.
- ③ mkhousra : 중요한 관료들이 신는 슬립퍼로 가죽의 질과 우아한 형태로 유명하다.
- ④ rihya : 이 신은 특이한 형태로 보이는 높은 굽이 달린 검은색의 도시인의 신발이다.
- ⑤ irkassene: 생가죽 샌달로 아프리카 수염새끈(eaparto grass:스페인 및 북아프리카에 나는 풀로 밧줄, 바구니, 구두, 종이등의 원료)으로 묶어 발목부분에 나무조각을 묶어 놓았다.
- ⑥ chrabil: 실크와 금, 은실로 수놓은 슬립퍼이며 도시여성들이 가장 많이 신는다.
- ⑦ taberbacht: 가죽신의 일종으로 요즈음의 덧신 같은 모양으로 바닥이 납작하고 운두가 높아서 뒤꿈치까지 오며 발등에는 여러색깔의 형겅조각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진 신이다.

이 외에도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신발들이 있다(복식의 그림 참조).

VI. 결 론

모로코는 아프리카 대륙 북서단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로 정식 명칭은 마그리브 왕국(Al Mamlata al Maghrebja)이다. 정부형태는 국왕 중심으로 수산업, 광업, 공업등 지하자원이 풍부하나 관개시설의 부족으로 강우량에 따라 작황의 기복이 심하다. 국

65) 상계서, p.58.

교는 이슬람교이며 소수의 사람들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믿고있다.

1. 복식 : 이슬람 교도 아랍인의 복장은 검소하고, 원시적 종교의 베르베르인의 복장은 화려한 복장으로 종교가 의상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의상의 색채는 다양한 색채와 무늬가 있으나 흔히 순색과 줄무늬를 볼수있고 고급관리나 상류층 사람들은 흰색이 상징색으로 되어 터번과 신발까지도 흰색을 신는다.

모로코의 대표적인 의상은 남녀 공통적으로 입는 직선 재단한 원피스 스타일의 제라바(Djellba), 카프탄과 샤프왈이고 남자들이 망토처럼 두르는 세랍, 간도라, 사 둥이고, 그 외 여자들이 두르는 드레이프형의 하이크라 할 수 있다.

아랍 여성들은 단순한 실루엣과 몸과 얼굴, 머리카락이 드러나지 않도록 베일을 착용한다. 반면 베르베르인들은 여러가지 장식으로 화려한 것이 특징이다. 추울때는 망토 스타일의 겹옷을 하나 더 걸치고 머리에는 넓은 천으로 터번을 두르고 모래바람이 심할때는 이것을 풀어 얼굴을 가린다. 옷은 대부분 푸른색으로 시원한 오아시스를 찾는 마음을 상징한다.

여성 복식의 특징은 외출시 얼굴을 가리는 것이다. 이 외 여성의 복식에서 중요한 것은 카프탄이다.

2. 축제의 종류와 복식 : 모로코의 전통축제는 민속행사, 예술전시회, 농사에 관련된 전시회, 여행업, 종교에서 유래된 행사, 성인의 생일이나 기일 등 거리에서 시민을 기쁘게 하는 각종 행사로서 명칭도 다양하다. 여자들은 이 기간에 최대의 성장과 화장을 한다.

축제의 복식은 특별한 양식은 없고 일반 민속복식에 각종 장신구와 화려한 스카프등을 착용하고 화장과 문신을 한다.

3. 장식 및 부속품 : 브로치, 목걸이, 팔찌, 반지, 귀

걸이, 가슴장식, 머리장식을 들수있으며 모로코인들은 장신구를 하나의 재산의 상징으로 생각하여 금은 세공품(동전, 니엘), 진주, 산호, 호박, 철보 등 각종 보석을 사용하여 여러개의 금,은줄이나 고리로 거대하게 매다는 특징이 있다. 또 결혼할 때 가지고간 장신구는 지참금으로 간주된다. 뿐만아니라 장신구들은 부족의 마크(mark)역할도 한다. 남부지방의 특징은 다양한 삼각형모형과 티즈니 지방의 난형(달갈형)과 등근형의 모형이 있다.

전통 신발은 앞 끝이 뾰족하고 뒤굽이 없으며 뒤가 트인 노란가죽 슬립퍼라 할수 있으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장식이 더해진 다양한 형태의 신을 볼 수 있다.

색채는 노란색, 빨간색, 흰색등 여러 가지 색의 신도 있다.

모로코 민속복식을 연구하면서 발견된 공통점은 의복의 기원인 권의 형식이 역시 세계적인 복식의 기원이라는 점을 재인식 할수있었고 종교의 영향, 종족의 후계의 영향이 생활풍속과 문화와 인간의 의식에 깊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수있었다.

참고문헌

- 대한무역진흥공사, 해외시장 모로코편, 서울 : 대한무역진흥공사, 1991.
- 동아출판사, 동아시아세계대백과사전, 서울 : 동아출판사, 1995.
- 빅토리아 에빈, 임숙자 역, 신체장식, 서울 : 경춘사, 1988.
- 산업연구원, 모로코, 서울 : 산업연구원, 1985.
- 중앙교육연구원, 북아프리카, 아라비아 반도, 서울 : 평화당, 1994.
- 채정자 역, 중동·아프리카, 서울 : 역사교육자협회, 1998.
- Garba Ashiwaju, E. U. Enam, S. O. Oputa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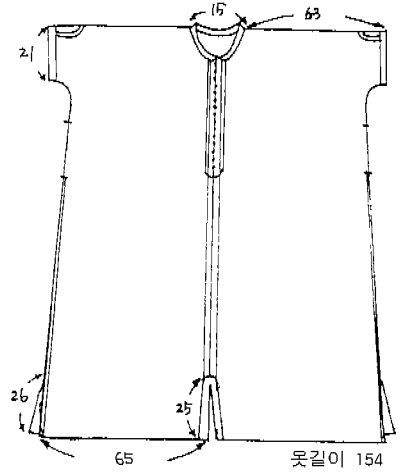
- 저, 황춘섭 역, 나이지리아인의 신체장 식과 의복, 서울 : 경춘사, 1993.
- 김수영, 아프리카 직물의 기법과 지역별 특성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1993.
 - 김유희, 모로코 민속복식을 응용한 현대 복식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1996.
 - 손옥임, 모로코의 국가건설과 교육제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유재홍, 한국과 북아프리카 국가간의 경제협력 방안에 관한 고찰,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유정준, 모로코의 언어상황에 관한 연구, 한국의 국어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季刊民族學, 日本版, 1995.
 - 小川安朗, 世界民族服飾集成, 東京 : 文化出版局, 平成3年.
 - 松本敏子, 私の集めた世界の民族服, 衣生活研究, 1989.
 - 川 博子, 異文化への旅-モロッコ-, 衣生活研究, 1992.
 - Abd El-Kader Baina, Le Systeme de L'enseignement au Maroc. Tome I, casa : Les Editions Maghrebines, 1981.
 - Adam Biro, Le Voyage de Delacroix au Maroc, Paris : Odile Qurot, 1990.
 - Berlitz, Morocco, N.Y : Macmillian Company, 1991.
 - 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e, N.Y : Haper & Row Pubilshers, 1985.
 - Brian Bell, Insight Guide Morocco, HK : APA, 1995.
 - Daisey Hilse Dwyer, Male & Female in Morocco, Colombia : Colombia University Press, 1978.
 - Frances Kennett with Caroline MacDonald-Haig, World dress, LD : Mitchell Beazley, 1994.
 - Jacques Et Marie-Rose Rabaté, Bijoux du Maroc, Paris : EDISUD, 1996.
 - JAMES F. JERES, Arts and Crafts of Morocco, LD : Thames and Hudson, 1995.
 - JEAN BESANCENOT, Costume of Morocco, Aix-en-Provence : EDISUD, 1990.
 - Jean du Boiserranger & Izza Genini, Maroc, Paris : Richer Hoaqui, 1990.
 - Jean Thepegnier, MAROC, Paris : Eddif International, 1981.
 - Marie-Pascale Rauzier, Moussems Et Fêtes Traditionnelles au Maroc, Paris : ACR Édition, 1997.
 - Max Tilke, COSTUME PATTERNS AND DESIGNS, N.Y :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s. Inc, 1990.
 - Robertn Bellah, Reflections on Fieldwork in Morocco, LD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LosAngeles, 1977.
 - Robert Harrold, Folk Costumes of the world, LD : BLANDFORD, 1988.
 - Seyyed Hossein Nasr, Islamic Art and Spritu-ality, N.Y : State University of Newyork Press, 1987.
 - Vanessa Maher, Women & Prosperity in Morocco,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4.
 - Watternberg and Smith, The New Nation of Africa, LD : Hart, 1998.



<그림1> 카프탄
(Costume of Morocco, P.4.)



<그림2> 제라바
(Costume of Morocco, P.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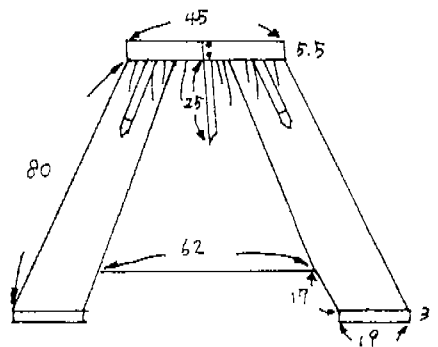
<그림3> 간도라
(세계의 민속복)



<그림1> 하이크
(Costume of Morocco, P.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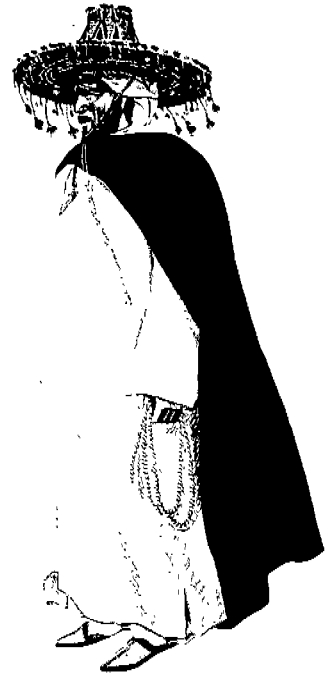


<그림5> 샤르왈
(Costume of Morocco, P.3.)





〈그림6〉 북부 모로코 의상
(Costume of Morocco, P.1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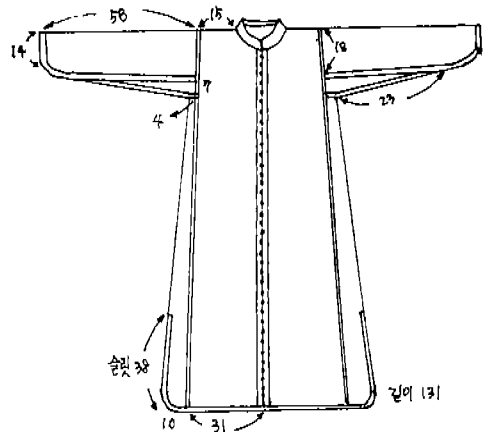
〈그림7〉 중부 모로코 의상
(Costume of Morocco, P.24.)



〈그림8〉 중부 모로코 의상
(Costume of Morocco, P.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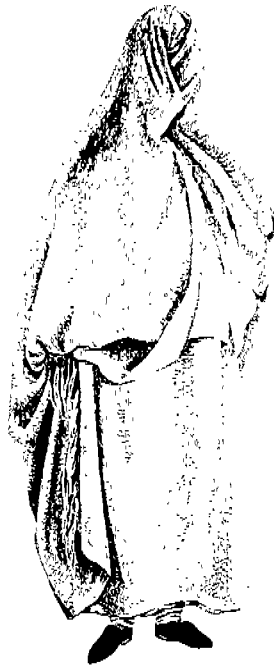
〈그림9〉 남부 유태인의 신랑
(Costume of Morocco, P.56.)



〈그림10〉 여성의 카프탄
(私の集めた世界の民族服, P.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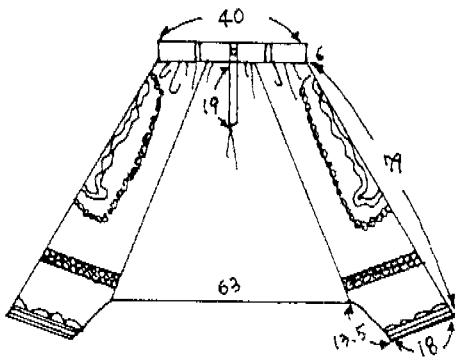
<그림11> 실내카프탄과 피나
(Costume of Morocco, P.8.)



<그림12-a> 하이크(izar)
(Costume of Morocco, P.6.)



<그림12-b> 타멜하프
(Moussems Et Fetes Traditionnelles au Maroc, P.90.)



<그림13> 베르베르족 여성의 사르왈
(私の集めた世界の民族服, P.38.)



<그림14> 중부여성 하위집단복
(Costume of Morocco, P.19.)



<그림15> 샤야크
(Costume of Morocco, P.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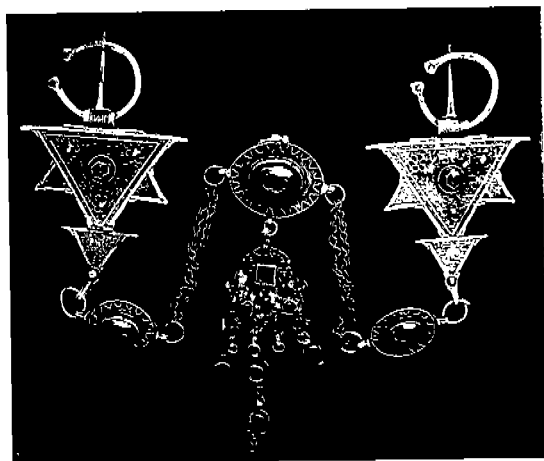
〈그림16〉 야파구
(Costume of Morocco, P.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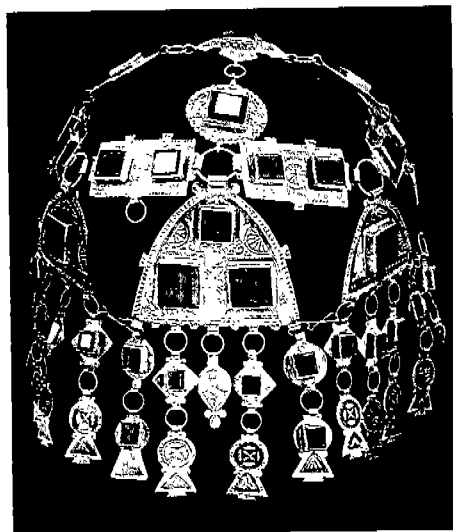
〈그림17〉 가슴장식
(Costume of Morocco, P.185.)



〈그림18〉 가슴장식
(Bijoux du Maroc, P.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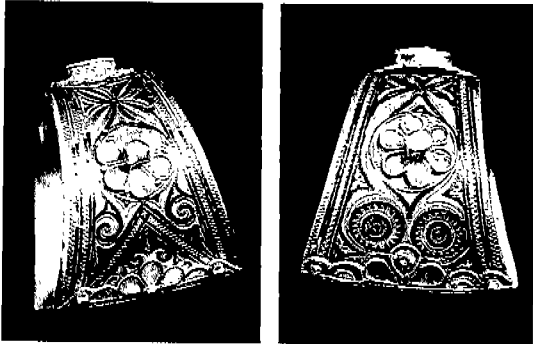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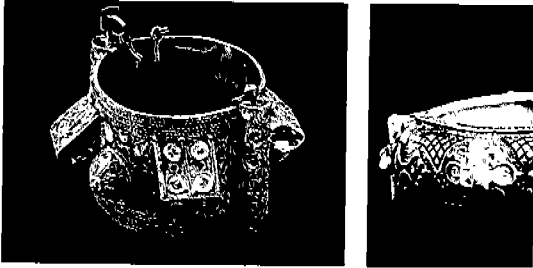
〈그림19〉 부로치
(Bijoux du Maroc, P.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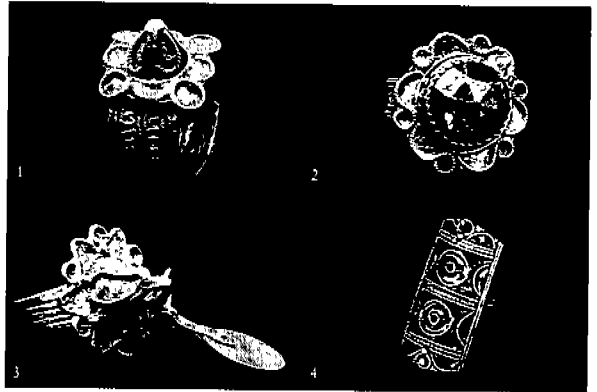
〈그림20〉 머리장식
(Bijoux du Maroc, P.69.)



〈그림21〉 머리띠
(Bijoux du Maroc, P.50.)



〈그림22〉 팔찌
(Bijoux du Maroc, P.59.)



〈그림23〉 반지
(Bijoux du Maroc, P.60.)